◆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을 전담하게 될 공식 유치위원회가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민간단체인 부안군태권도협회(회장 홍범철)가 지난달 26일 부안초등학교 강당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태권도인들이 앞장서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유치 기원 태권도 어울림마당'을 펼쳤다.

"지역 경제 활성화 유발 · 새만금 알리는 기회가 될 것"

새만금유치 분위기 조성 · 태권도 어울림 행사 등 열정적인 유치홍보 나서
부안태권도협회, 잼버리 유치 열기 따라 태권도어울림 행사 성황리 치뤄

글로벌 청소년 축제로 지난 1920년 영국의 런던 올림피아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야영대회가 잼버리가 국제행사로 자리잡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는 올림픽 못지 않은 잼버리 대회를 서로 유치하려고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고 있다.

새만금이 강원도 고성을 누르고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전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폴란드 그단스크와 치열한 본선 2파전을 벌이고 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지역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부안 태권도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을 전담하게 될 공식 유치위원회가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민간단체인 부안군태권도협회(회장 홍범철)가 도내 처음으로 산·들·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부안의 새만금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태권도 어울림 행사를 펼치는 등 열정적인 유치홍보에 들어갔다.

부안군태권도협회(회장 홍범철)는 지난달 26일 부안초등학교 강당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태권도인들이 앞장서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유치 기원 태권도 어울림마당'을 펼쳤다.

태권도 어울림마당에는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송하진지사님을 대신해 오경진 여사, 홍범철 부안군 태권도협회장과 부안 군의회 박병래 의원, 전북도태권도협회 최동열 회장 등 500여 태권도인과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유치를 염원하는 꿈(배롱)나무 기증식수 가졌다.

이날 가족 품새, 단체전, 페어전, 태권스피닝, 높이뛰어 격파, 줄넘기, 전라북도 상임 심판의 시범 및 격파 순의로 진행하여 태권도 수련생과 학부형, 임원 등 군민이 하나 되어 2023년 세계점버리를 외치며 태권도어울림 행사를 성공적으로 펼쳐졌다.

이 자리에 김종규 부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부안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6만 부안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태권도인도 함께 힘찬 응원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축하메시지에서 "민간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잼버리 유치에 열정적으로 홍보에 앞장선 부안군태권도협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회가 유치되면 지역 경제적 유발효과는 물론이고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밝혔다.

홍범철 부안군 태권도협회장도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홍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여 반듯이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스카우트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 경이 1920년에 처음 개최, 해를 거듭할수록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장으로 지구촌 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으로서 4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160여 개국 5만 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청소년 최대의 축제이다.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부안 새만금은 유럽의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최종 개최지는 2017년 8월에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결정된다.

/부안=이옥수 기자